

빛그린산단 - 모빌리티 첨단 3지구 - 인공지능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 세제 혜택·규제 완화
‘앵커기업’ 유치 투자 생태계 강화
전남은 6월에 5개 단지 지정

광주시가 전남에 이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역점 사업인 미래차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사업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 완화로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투자 생태계가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기회발전특구로 광주시 빛그린국가산단(68만 6797㎡·20만 7000평)과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 3지구(52만 3560㎡·15만 8000평)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빛그린국가산단을 ‘모빌리티 특구’로, 첨단3지구를 ‘인공지능 특구’로 각각 키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특구에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전자 부품·이차전지 등 미래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게 된다.

AI 특구에는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융복합 서비스를 실증·구현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 및 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제안했다.

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따라서 기업 유치와 첨단 인프라 구축 등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이날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DH오트웨이 등과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지역 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시는 특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환경 등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미래차와 인공지능 등 역점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이끈 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목포신항과 해남화원 조선단지 등을 포함한 해상풍력단지,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등을 포함한 데이터센터 단지, 울촌 1산단·세풍산단, 광양국가산단을 아우르는 이차전지단지, 여수시 묘도를 비롯한 수소산업클러스터단지,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지구 등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된 바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에 오는 기업에 세제 지원·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며 “AI, 모빌리티 산업 투자 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 특구가 우수기업의 지역 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지원, 세제 거리 등급제, 전략 차등요금제 등 3대 지원방안이 담긴 기회발전 특구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트럼프 시대 다시 열리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대선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미국의 황금시대 열어갈 것”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지서 승리 ... 선거인단 315명 확보 예상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5일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3·9·10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요건인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가운데 3명이 부족한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승리 선언은 경합주가 운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를 이기면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경합주 가운데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개표 내내 사실상 우위를 지키면서 승리했다. 2020년 대선에선 분투표 개표 때는 당 색깔이 빨간색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다가 이후 사전투표 개표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으로 우위가 바뀌는 이른바 ‘붉은 신기루’(red mirage)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개표 중반까지는 애들렌다 등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대도시 지역의 남은 표에 따라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으나 현실이 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주에서 개표가 완료됐을 때 자신이 확보할 선거인단 수를 최소 315명으로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선거인단만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도 넉넉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전 첫 당선이 전체 득표수에서 지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이기는 이례적인 ‘반쪽짜리 승리’ 논란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 완전한 승리에 이른 셈이다. 이날(현지시간) 미국 대선 개표 현황에 따르면 경합주 일부 등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승자가 결정된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6850만 448표를 얻어 51.2%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얻은 6348만 8382표(47.2%)와 격차는 3.8%포인트다.

이번 승리는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2016년 대선에서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해 승리하긴 했지만 전체 유권자 득표율은 45.9%에 그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48.0%)에 밀렸던 ‘짚뿔함’을 털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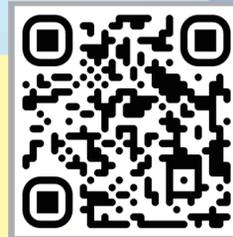
전남일자리정보망

새단장 오픈

개통일 2024. 10. 16. (수)

전라남도의 모든 일자리 정보는

전남일자리정보망 검색에서 원스톱 제공



- 사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
- 시기별 맞춤형 일자리 추천
- 챗봇 서비스 제공
- 일자리지원사업 신청 가능
- 산업별·계층별 지역별 맞춤 정보제공
- 다양한 일자리 관련 통계 제공

홈페이지 주소 <http://job.jeonnam.go.kr>

구인·구직상담(전남일자리종합센터) 동부권 ☎061)750-7700 / 서부권 ☎061)287-1142